

YTN 뉴스 인쇄하기▶ [인쇄하기](#)▶ [창닫기](#)

"빛 이용 암 치료"...항암 치료 부작용 개선되나

2014-01-03 16:08

포스텍 한세광 교수팀은 미국 하버드의대 연구팀과 공동으로 빛을 이용해 암을 치료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.

이 기술은 나노미터 크기의 그래핀을 히알루론산과 접합해 피부를 통해 투입한 뒤 근적외선을 쬐어 광열효과로 암 조직을 괴사시키는 방법입니다.

이 기술을 적용하면 암 조직만 선택적으로 치료할 수 있어 전신 약물투여 등 항암치료 과정의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허성준 [hsjk23@ytn.co.kr]